

‘양현종 vs 김광현’ 8년 만에 광주 빅매치



하늘이 ‘빅매치’를 성사시켰다. 지난 주비로 4경기를 연달아 선 KIA 타이거즈가 1위 SSG 랜더스를 상대로 새로운 주를 연다. 주말에는 잠실로 건너가 두산 베어스와 원정 3연전을 치른다. KIA는 상승세 국면에서 비 때문에 ‘경기 감각’ 우려라는 속제를 안았지만, 비 덕분에 ‘빅매치’가 만들어졌다.

9일 챔피언스필드에서는 KIA 양현종과 SSG 김광현이 선발로 출격한다. 팀은 물론 KBO리그를 대표하는 두 특급 좌완이 8년 만에 맞대결을 벌인다.

KIA는 지난 주 비 때문에 4일 롯데와의 홈경기에 이어 주말 NC와의 원정 3연전까지 내리 4경기를 쉬었다. 4일 선발 등판을 준비했던 양현종은 5일에도 등판이 무산되면서 로테이션이 조정됐다.

하늘만 올려줬던 KIA와 달린 SSG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던 주말에도 고척스카이돔에서 정상적으로 모든 경기를 소화했다.

덕분에 두 선수가 9일 챔피언스필드 마운드에 오르게 됐다

양현종과 김광현은 입단 첫 해인 2007년 처음 선발 매치에 나선 뒤 2015년 9월 26일 광주 경기까지 총 6차례 맞대결을 벌였다.

두 에이스가 출격할 경기에서 두 팀은 3승씩 주고 받았다. 양현종은 2승 2패, 김광현은 2승 3패를 기록했다.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를 기록한 KIA와 가장 먼저 20승 고지를 밟으면서 1위를 달리고 있는 SSG. 최근 흐름이 좋은 두 팀의 대결로도 눈길을 끈다.

‘하늘’이 성사시킨 빅매치의 변수 역시 ‘하늘’이

오늘 챔피언스필드서 선발 출격

총 6차례 선발 맞대결

양 2승 2패·김 2승 3패 기록

KIA, 주말엔 두산 원정 3연전

될 전망이다.

KIA는 4경기를 연달아 쉬면서 타자들의 ‘감’이 속제가 됐다. 대신 바쁘게 달려왔던 볼펜진이 넉넉한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을 끝냈다.

지난 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많은 팀이 경기를 쉬었지만 SSG는 키움과 함께 6경기를 모두 소화했다. 좋은 기세로 5승 1패를 기록했지만 주말 3연전에서 1~2점차의 승부가 이어지면서 피로가 쌓였다. 휴식 없는 강행군 속 6개의 실책도 기록했다.

초반 집중력 싸움에 따라서 빅매치의 결과와 주중 시리즈의 성적도 달라질 전망이다.

주말에는 잠실이 뜨거워진다. KIA는 4월 28일 LG를 상대로 시즌 첫 잠실 원정에 나섰다. 그리고 예상과 다른 싸움이 3연승을 기록하면서 잠실 팬들을 환호시켰다. 응원전에서도 승자가 됐던 KIA가 다시 한번 뜨거운 잠실을 기대하고 있다.

앞선 대결에서는 두산이 2승 1패로 웃었다. KIA는 무사만루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1점 차 패배를 당하는 등 첫 만남에서는 뒷심싸움에서 밀렸다. 두산전 패배 이후 하락세를 탔던 KIA는 최형우의 끝내기 홈런으로 분위기를 바꾸고 흥미로운 승부를 펼치고 있다. 달라진 화력으로 4월까지 올라선 KIA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종



김광현

KIA 타이거즈 심재학 신임 단장 선임

심재학(51·사진) MBC SPORTS+ 해설위원이 KIA 타이거즈 단장으로 선임됐다.

KIA가 8일 신임 단장 인사를 단행했다. 심재학 단장은 충암고-고려대 출신으로 1995년 LG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뒤 현대와 두산을 거쳐 2004년 KIA로 이적했다.

2008년 현역에서 은퇴한 심 단장은 히어로즈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고, 2019년부터 MBC SPORTS+ 해설위원으로 활동했다. 올해 열린 제 5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는 대표팀 컬러 코치(데이터 분석)와 타격코치를 겸임하기도 했다.

KIA 관계자는 “심단장은 프로시절 타자와 투수



를 모두 경험했으며, 다년간 지도자,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야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선임 이유를 밝혔다.

한편 KIA는 지난 3월 장정석 단장을 금품 요구 논란으로 해임한 뒤 ‘명단 재건’을 위한 새 단장을 모색해왔다.

심 단장은 9일 프런트, 선수단과 상견례를 갖고 공식 행보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메시 없어도 음바페 있음에…PSG, 3-1 승리

프랑스 리그1 트루아와 경기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이 자체 징계로 리오넬 메시 없이 나선 첫 경기에서 완승했다.

PSG는 8일(한국시간) 프랑스 트루아의 스타드 로브에서 열린 2022-2023시즌 프랑스 리그 1 3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트루아를 3-1로 물리쳤다.

직전 라운드에서 로리앙에 1-3으로 지고, 구단을 대표하는 슈퍼스타인 메시가 무단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여행을 떠나 뒤송송했던 PSG는 시원한 승리로 분위기를 회복했다.

이날 승리로 PSG는 승점 78로 선두 자리를 굳게 지키며 2위 랭스와 격차를 승점 6으로 벌였다.

PSG는 승점 7만 더 따내면 자력으로 통산 11번째 우승을 확정 짓는다.

전반 8분 만에 킬리안 음바페가 선제골을 뽑았다.

동료가 올린 크로스가 상대 선수를 맞고 굴절돼 크로스바에 튕겨 나오자 이를 머리로 받아 득점했다.

이어 후반 14분 비타냐가 마르코 베라티의 크로스를 골로 연결했다.

후반 38분 트루아가 한 점을 따라붙였지만, PSG는 파비안 루이스의 쉐기골로 3-1 승리를 마무리했다.

메시는 지난달 30일 로리앙전 뒤 PSG의 허락 없이 사우디를 방문했다. 훈련에도 무단 불참했다.

결국 PSG는 메시에게 당분간 경기 출전과 훈련을 금지하는 징계를 내렸고, 해당 기간 급여 지급도



음바페

중단하기로 했다.

메시는 정장을 입고 사과 영상을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그는 “사우디 방문 계획을 전에 한 번 취소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정 변경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프랑스 매체들은 PSG가 메시에게 2주간 출전 금지 징계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다만, PSG가 징계 수위를 공식 발표한 적은 없다. /연합뉴스



임성재가 8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웨일할로 클럽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웰스파고 챔피언십 4라운드 14번 홀에서 어프로치 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재·이경훈, PGA 웰스파고 챔피언십 공동 8위

임성재와 이경훈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웰스파고 챔피언십(총상금 2000만 달러)을 공동 8위로 마무리했다.

임성재와 이경훈은 8일(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웨일할로 클럽(파71·7538야드)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까지 최종합계 9언더파 275타를 기록, 공동 8위에 이름을 올렸다.

3라운드까지 공동 5위를 달리며 더 높은 순위도 노려볼 수 있었던 임성재는 이날 이글 하나와 버디 3개를 써냈으나 보기 4개와 더블보기 하나도 나오며 한 타를 잃고 10위 이내를 지킨 데 만족해야 했다.

임성재는 이번 시즌 7번째 톱10을 기록했다. 특

히 지난달 RBC 헤리티지(공동 7위)와 취리히 클래식(6위)에 이어 최근 3개 대회 연속 톱10이다.

PGA 투어 통산 2승을 거둔 그의 이번 시즌 최고 성적은 1월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의 공동 4위다.

이날 임성재는 7번 홀(파5)에서 두 번째 샷을 5m 남짓한 거리에 떨어뜨린 뒤 이글을 낚는 등 전 반 한 타를 줄였으나 후반 17번 홀(파3) 티샷을 물에 빠뜨린 여파로 더블보기가 나온 것을 비롯해 두 타를 잃어 아쉬움을 남겼다.

임성재는 귀국해 11일부터 열리는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에 출전할 예정이다

3라운드 공동 20위였던 이경훈은 최종 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3개로 3타를 줄이고 순위를 끌어 올려 시즌 3번째 톱10에 들었다.

지난해 10월 CJ컵 3위, 올해 1월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공동 7위 이후 4개월 만이다.

8번 홀(파4)에서 8m 넘는 버디 퍼트를 넣은 이경훈은 14~15번 연속 버디를 더했다.

우승은 세계랭킹 80위 원담 클라크(미국)에게 돌아갔다.

클라크는 최종합계 19언더파 265타를 기록, 2위 젠더 쇼플리(미국·15언더파 269타)를 4타 차로 제치고 자신의 PGA 투어 134번째 출전 대회에서 첫

우승을 달성했다. /연합뉴스